

쏠대 막판 혼전.. 후보간 싸짓기 윤곽

정세균-최재성, 정동영-천정배, 손학규-박주선 구축

지역위원장 대의원 장악력 약화 배제투표 오리무중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권의 향배는 오리무중이다. 일단 전체적인 관세는 선두 자리를 놓고 정동영, 손학규, 정세균, 박주선 후보 등이 서로 물고 물리는 혼전을 벌이고 있다.

그 뒤를 천정배, 이인영, 조배숙, 최재성 후보 등이 뒤 따르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최종 당권의 향배는 당일 투표함을 개봉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혼전 구도는 지역위원장의 대의원 장악력이 현저하게 약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대의원의 표심에 상당 부분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대의원이 독립적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에는 지역위원장이 지역구 대의원의 40%만 장악해도 대의원 상황"이라며 "이마저도 2순위 표에 대해서는 대의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1인 2표제의 특성상, 대의원들이 행사하는 2순위 표의 향배를 알기 어렵다는 점도 혼전 양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체의 30%를 반영하는 당일 여론조사도 당권의 향배를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혼전 구도 속에서 후보 간의 연대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정세균-최재성, 정동영-천정배, 손학규-박주선 조합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이 구축되는 흐름이다.

하지만, 정세균-최재성 조합을 제외하고는 타 후보들은 직접적인 연대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잘못 했다가는 배제투표 흐름이 형성되면서 경선 막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보 간의 연대는 전당대회 현장에서 이뤄지거나 이심전심의 흐름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선두를 노리고 있는 후보 진영에서는 '3위 안에 들기도 힘들다'며 경선 막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있다.

경쟁 후보의 견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고 바닥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재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의적으로는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자칫, 1위 기분을 났다가는 타 후보 진영의 집중적인 배제투표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얽은 이인영 후보에 대한 지지 표의 향배도 전체적인 당권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당일 현장 분위기도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최종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에서는 전당대회장에 모인 대의원의 가슴을 두드릴 수 있는 호소력 있는 연설을 위해 원고를 다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 누구도 1위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후보 간의 연대, 배제투표, 바닥 표심의 흐름,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1위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내 식탁엔 양배추김치 올려라”

배추값 폭등 서민고통 함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배추 값 폭등으로 김치마저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서민의 애환을 함께하기 위해서 청와대 주방장에게 직접 값이 싼 양배추 김치를 올릴 것을 지시했다는 것.

또한, 장을 보러 인근 마트를 다녀온 부인 김윤옥 여사도 1포기에 1만원을 넘는 배추 값에 대한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양배

추 김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서민과 함께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배추 값 폭등이 서민 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자주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관계 수석실에 치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남 협의회를 갖고 중간 유통 상인들의 배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절인 배추 수입량과 조기 출하량을 늘리는 등의 배추 값 폭등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4일 외교장관 청문회 추진

靑 오늘 후보자 발표

한나라당이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4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지난달 30일 알려졌다. 청문회는 10·3 전당대회 등의 이유 때문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11일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실무 책임자인 외교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 준비, 외통위의 해외 국감 활동 등을 감안할 때 외교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외교부 국경감사를 시행하는 4일 인사청문회를

병행 개최하고 5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 측에 이 같은 외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제안했으며, 이날도 여야 간 조율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10·3 전당대회 등의 이유 때문에 답변을 유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외교통상동일위원회는 10월6일~19일 해외 현지 국경감사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청문회가 6일까지 개최되지 않으면 20일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형식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내달 1일 국회 인준을 받게 되면 외교장관 인선절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우상호·임종석 등 486 대다수

“이인영 후보 지지 합니다”

우상호·임종석 전 의원과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백원우 의원을 지지했던 김태년·김형주·이화영 전 의원 등 민주당 486 대다수가 이인영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우상호, 임종석 전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이인영 후보는 486세대의 단일 후보로 대표성을 확보했다”며 “광주·전남에서 민주당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이인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전 의원은 “민주당 차세대 지도자는 새로운 인물이어야 하고, 진보정치노선과 민주진보대통합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당 지도부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김형주·이화영 전 의원도 이날

선언문을 통해 “한 표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 달라”며 이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486 정치인들은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지도부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백원우, 이인영, 최재성 세 후보가 당대표-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던 것도 이러한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백원우 의원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버렸다. 백원우 의원의 결단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백원우 의원의 정신을 지켜줘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질적인 단일후보인 이인영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쏠대 날씨 누구에게 득 될까

우천팬 대의원 참석률 저조

민주당 당권 주자들 노심초사

민주당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당권 주자 진영에서는 ‘날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야외인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데 비가 온다면 대의원의 참석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기상 예보로는 당일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흐린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각 후보 진영에서는 지지 대의원의 참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조직력이 약한 당권 주자 측에서는 당일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흐리다면

대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모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호우라도 내린다면 대의원의 참석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비가 온다는 전제 아래, 지지 대의원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도 당일 인천지역에 비가 온다면 야외 행사 특성상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당일 비가 온다면 대의원의 참석률이 일정 부분 낮아지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지 않아도 전당대회 흥행이 저조해 걱정인데 날씨까지 속을 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준영 2억8천·안순일 1억2천·장만채 1억

6·2지방선거 고액후원금 공개

6·2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00만원 초과 고액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영숙 후보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걸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연합뉴스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공개한 ‘300만원 초과 후원금 현황’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 지사는 고액후원금을 통해 4억688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고액후원금을 모금했던 36명의 시·도지사 후보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김 지사에 이어 한나라당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이달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억4590만원을 모금했고, 김법일 대구시장

(한나라당)은 2억9810만원을 걸었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민주당)는 2억8250만원을, 허남식 부산시장(한나라당)은 2억7200만원을 모금했다.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형식 후보의 모금액이 1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안순일 광주시 교육감(1억1900만원),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1억400만원),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1억200만원)도 1억원 이상을 모금했다.

고액후원금을 낸 기부자 중에서는 기업인이 1위를 차지했다. 시도지사 후보자들에게 고액후원금을 낸 921명 중에는 사업가, 대표이사, 건축업자, 자영업자 등 기업인이 347명(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원이 157명(17.0%), 직업 미기재자가 140명(15.2%)이었고, 국회의원 17명을 포함한 기타 직업군은 260명이었다. /연합뉴스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가격 30,000원 (택배비 무료)

발목펌프운동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목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예방 할 수 있으므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없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500회 1,000회를 처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아침 저녁 2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린다 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가자, 우 고대로 한다.
3. 이삼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상담 전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국민은행 건너편 던킨도너츠 2층)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섭

조선이공대학
2010년 유망신성학과

프랜차이즈 서비스창업교

우리와 특징 5가지

1. 수시1차는 성적에 상관없이 합격가능
2. 연봉 6천만원의 프랜차이즈 점장에 도전
3. 20~30대 장사,사업으로 10억 모은 점장,대표 특강
4. 술이야기, 상권분석, 커피바리스타 등 실무중심 수업
5. 네이버카페에 자제한 우리과 소개를 참고하세요

졸업후 직원 ▶ 매니저 ▶ 점장 ▶ 창업까지

학과카페: **NAVER 카페 bxbx**

재학중 5가지 자격증취득 (100%)

외식산업관리사 서비스경영관리사 커피바리스타 유통경영관리사 고객서비스수료증

일일의 학교실 (062) 230-8410
cafe.naver.com/bxbx

www.dreamkorea.biz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미끄럼,방지가능을 한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휴실 • 물탱크 • 양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신제품 목발 부여 사용되는 - 강력접착지등수평바닥재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에 전문반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증 품질보증업체 입니다. 코어텍스공법 특허

드림코리아 DREAM KOREA 광주·전남 대리점

광산구 062)941-3266 북 구 062)433-2225 여 수 061)662-3002
남 구 062)430-5777 순 천 061)746-5556 해 남 061)532-9789
서 구 062)372-7704 나 주 061)333-7789
동 구 062)234-6698 목 포 061)242-2220